

남원시, 드론 실증도시·상용화 시연

실증도시 구축 8개월 성과 확인 화재 감시·고층량 화재 진화 등 소방 드론 상용화 모형 제시

‘드론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남원시가 지난 24일 시연회를 열고 8개월간 성과를 선보였다. 남원시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3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공동 시연회를 이날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서 열었다.

운봉읍 주촌리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남원시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소방 드론의 상용화 모형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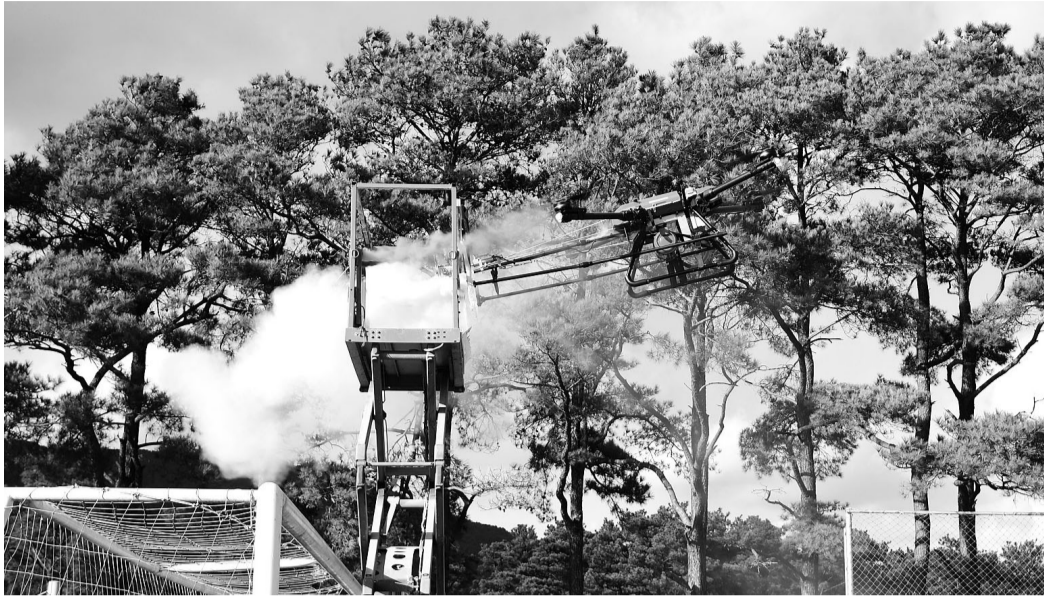
‘화재 감시 시스템’과 ‘고층량 드론 활용 화재 진화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접근이 어려운 고층 건물의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강화유리 파괴 장치와 소화액 분사 장치 작동 등도 시연했다.

시연 과정은 모두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드론 관제 체계로 통합 관리됐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주)팔네트웍스(관제 시스템), (주)와이미래기술(고층량 소방 드론), 스페이스원(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과 협력해 실증을 수행해왔다.

(주)스페이스원은 지난 10월 열린 ‘2023 남원 세



남원시가 지난 24일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서 개최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동 시연회에서 소방 드론 실증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남원시 제공>

게드론제전’에서 ‘드론스 위 챌린지’ 경기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서우와 (주)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가 참여해 추진됐다.

접근이 어려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 드론을 실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와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협력 체계를 발굴해 ‘드론 레저스포츠 도시 남원’, ‘드론 공공서비스 활성화 도시 남원’ 등 추진한 성과를 되돌아볼 좋은 기회였다”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드론 문화의 도

시 남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드론산업을 위해 LX드론활용센터 구축, 드론 통합관제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추진하며 드론 레저스포츠 인재와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또 드론 교육·연구기관과 연계해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드론활용센터와 남원 드론 문화체험관 건립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백성기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방사성동위원소 평가 플랫폼 센터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디딤돌 사업...국가 정책 반영 논의

정읍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디딤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간 보고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이만재 정읍시의원, 신정동 일원 연구기관 핵심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정읍시는 방사성동위원소 흡수·분포·대사·배설(RI-ADME) 평가 플랫폼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연계 전략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속적인 기반 시설 보강과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RI-ADME 평가 플랫폼 구축안이 국가사업에 반영된다면 열악한 국내 여건 탓에 외국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정읍시는

내다봤다.

정읍시는 RI-ADME 시험평가에 대한 다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방사선 의학 연구개발과 장비 활용, 기술정보 제공 등 기술 혁신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신정동)를 기반으로 정읍시를 RI-ADME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신정동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등 3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소, (재)농축산용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등 우수한 기반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용역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내실 있는 용역 성과물로 반드시 관련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복분자’ 옛 명성 다시 한번



고창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4일 열린 ‘고창 복분자 재도약을 위한 종합토론회’에서 참석한 150여 농가가 재배 기술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고창군 제공>

군, 150여 농가와 토론회

고창군이 대표 특산물인 ‘고창 복분자’의 재도약을 위해 150여 농가와 토론회를 열었다.

고창군은 지난 24일 고창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복분자 농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복분자 재도약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기후 때문에 재배 위기를 맞은 복분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과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동안 점차 감소해온 복분자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우선 김영철 고창농촌개발대학 복분자과 대표와 구효숙 복분자연구회 총무가 위기 극복 우수 사

례를 발표했다.

정서경 고창농업기술센터 팀장은 기후 위기 극복 복분자 재배 기술을 소개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날 고창 복분자 고사 극복 상담(김길우 교수·한현우 교수)도 받으며 해결 방안을 찾았다.

‘고창 복분자 고사 극복 컨설팅’은 고온성 미생물을 활용한 재배 기술로,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됐다.

교육생들은 고창 복분자의 안정생산을 위해 제시된 여러 방법 가운데 식물체 면역력 강화를 위한 고온성 미생물 농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고창군은 이날 영농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각 지역농협 교육장에서 약 52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청년 주택 전세·구입자금 이자 지원

45세 이하 최대 10년간 300만원...전입 대학생 주거비도

정읍시가 내년 인구증대 시책의 하나로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구입자금 이자로 최고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시책에 따라 45세 이하 청년 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고 100만원(대출 잔액의 1%)에서 300만원(대출 잔액의 2%)으로 올린다.

주택 전세자금만 지원했던 이전과 달리 주택 전세자금·구입자금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신혼부부로 확대한다.

또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입 대학생 주거

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살고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과 올해 7월부터 1인 15만원으로 확대 시행한 ‘전입지원금 지급사업’은 내년에도 추진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형 치유농업 발전 방향 모색

시의회 연구회, 전문가 초청 강연...국내의 사례 등 공유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대표의원 김길수)’가 최근 남원형 치유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김길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손중열, 이기열, 오창숙 의원과 남원지역 치유농업연구회 회원, 남원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기능농업연

구소 박상식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상식 대표는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유농업 발전방안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등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남원시가 가진 전체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농업치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광과 연계된 치유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치유농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치유 관광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한 시민들과 남원시 관계자들은 남원형 치유농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원시의회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민간농업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를 선도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는 이날 초청 강연회를 끝으로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남원=백성기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